



은퇴 계획 수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최창희 연구위원

Clark et al.(2017)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02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은퇴 계획 수립여부를 예측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음.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 선호도를 이용하는데 반해 Clark et al.(2017)은 위험 선호도와 시간 선호도가 함께 분석에 사용되었을 때 시간 선호도가 더 강한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음. 시간 선호도 이외에 은퇴 계획 수립여부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은 금융 지식 수준, 소득, 결혼 여부, 주택 보유 여부, 응답 형태, 건강, 부양 자녀 유무 여부 등이었음. 이에 반해 위험 선호도, 현재 은퇴 가능 여부, 은퇴까지 남은 시간, 퇴직금 적립 기간, 인종, 근무 기관, 업종 등은 은퇴 계획 수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Clark et al.(2017)은 은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024명의 자료를 분석함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40만 명 정도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직업, 업무 능력, 학력, 보수 수준을 가지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교사, 일반 사무원, 시설 관리자, 공사현장 인부, 경찰 등으로 매우 다양함
- 동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기관 근무자 중 설문에 응답한 2,024명의 설문 내용과 응답자들의 은퇴 설계 시스템¹⁾ 자료를 활용했음
 - 설문 항목에는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인종, 은퇴 계획 설계 여부, 위험 선호도, 시간 선호도, 금융지식,²⁾ 주택 보유, 응답 형태(설문지,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은퇴설계 시스템에는 시스템 접속, 시스템 사용, 은퇴 적립금, 주택 이외의 자산 수준, 희망 은퇴 시점, 은퇴 후 경제활동 의사, 소득 대체율 등의 정보가 존재함

1) ORBIT(Online Retirement Benefits thorough Integrated Technology)

2) 금융지식 수준을 설문에 활용하는 방법은 Lusardi & Mitchell(2008) 참조

■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위험 선호도(risk preference)를 설명변수로 사용했으나 Clark et al.(2017)은 위험 선호도와 시간 선호도(time preference)를 설명변수로 사용했음³⁾

- 수입의 변동성과 기댓값이 높은 경우를 선호하는 사람은 높은 위험 선호 성향이 있고 반대로 기댓값은 낮으나 변동성이 적은 수입을 구조를 선호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있음
 - 동 연구는 매월 고정된 수입을 선호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 동일한 확률로 200% 또는 80% 수입을 올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위험을 선호한다고 가정함⁴⁾
 - 기존 연구는 은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인자로 위험 선호도를 사용했음⁵⁾
- 동 연구는 위험 선호도 이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가지 시간 선호도 변수를 정의했음
 - 인내심 변수: 65세 은퇴 시점부터 매월 1,000달러를 받겠는가(인내심이 강함) 아니면 일시불로 지금 80,500달러를 받고 매월 500달러를 받겠는가?
 - 로또 변수: 지금 1,000달러를 받겠는가 아니면 1년 후 1,200달러를 받겠는가?(후자가 인내심이 강함)
 - 위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인내심이 강함’을 선택한 응답자가 인내심이 강한 것으로 간주됨

■ Clark et al.(2017)의 실험에 따르면 시간 선호도 변수와 위험 선호도 변수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 시간 선호도 변수만이 은퇴 설계를 한 사람을 구분하는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설계를 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선형 회귀 모형에서 시간 선호도, 금융에 대한 지식, 수입, 결혼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응답 형태,⁶⁾ 건강 상태, 부양 자녀 존재 여부 등이 은퇴 설계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반해 위험 선호도, 현재 은퇴 가능 여부, 은퇴까지 남은 시간, 퇴직금 적립 기간, 교육 수준, 인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개인을 선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iri

3) 위험 선호도와 시간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Andersen et al.(2008) 참조

4) Barsky and Juster(1997)에서도 유사한 가정이 사용되었음. 200% 또는 80% 수입은 100% 고정 수입보다 수입의 기댓값은 높으나 변동성 또한 높음

5) Barsky and Juster(1997) 참조

6) 이메일로 응답한 사람들 중 은퇴 설계를 한 사람들의 비중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한 사람들보다 은퇴 설계를 이미 한 비중이 높았음

참고문헌



- Andersen, S., Harrison, G. W., Lau, M. I., & Rutström, E. E.(2008), “Eliciting Risk and Time Preferences. *Econometrica*”, 76(3), pp. 583~618
- Barsky, R., & Juster, F.(1997), “Preference parameters and behavioral heterogeneity: An experimental approach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pp. 537~579
- Clark, R. L., Hammond, R. G., Khalaf, C., & Morrill, M. S.(2017), “Planning for retirement? The importance of time preference”,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usardi, A., & Mitchell, O. S.(2008), “Planning and financial literacy: How do women 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P 98:2, pp. 413~417